



펀드계좌 만들어 주면 경제공부 '절로'

중·고교생 투자 경험... 초·중학생 지출 계획 길러줘야

내 자녀 추석 용돈 관리 어떻게?

유통기한 표시 없는 내수용 맥주

수출용만 기재... 변질·부패 소비자 피해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이번 연휴는 길어서 어느 때와는 달리 여유롭게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 막바지에 가족들이 헤어질 때 조카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아쉬움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용돈을 받아 평소와 다르게 목돈을 가지게 되면 또 하나의 고민이 생기게 된다.

대개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의 용돈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방치하거나, 어린 나이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버릇이 나빠진다는 미명하에 다시 회수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제 관념이 없는 어린 나이에 분수에 맞지 않는 돈을 사용하도록 방치하게 되면 부

적절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칫 나쁜 소비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용돈 회수는 자녀들에게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목돈을 부모가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인지시키고 자녀 명의로 용돈을 관리한다면 차후 자녀의 교육자금으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출에 대한 원칙을 정해 용돈을 쓰게 한다면 자녀의 경제 교육에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먼저 용돈을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한다면 대화를 통해 자녀만의 재무목표를 세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용돈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사주기보다는 용돈을 잘 관리해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대화로써 이끌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추석 때 용돈 5만원이 생겼다면 내년 여름방학 때 자연체험학습을 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부모가 5만원을 더해 자녀 명의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준다던 소중함 경제 경험이 될 것이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면

용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것도 좋은 경제 교육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언제 새나가는지 모르게 사용해보려고, 어디에 썼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모가 용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해 자녀와 대화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올바른 소비습관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실제로 10만원을 용돈으로 받은 자녀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브랜드 옷을

사고자 할 때 1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적어보게 해보자 그러면 대부분 10만원을 못 한 날 사는데 쓰키보다는 적당히 나누어서 다른 것들을 사거나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투자의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자녀의 이름으로 주식형 펀드 계좌를 만들어 주고 월 1회 정도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등을 확인하면서 왜 펀드의 수익률이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같이 공부한다면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시장의 원리, 금리, 환율, 유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 등 맥주 제조업체들이 수출용 맥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변질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005년부터 올해 9월18일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맥주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161건으로 맥주의 변질로 인한 부작용(장염, 구토, 설사, 복통)이 전체의 37.9%(61건)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맥주에서 쇠가루와 유리조각, 담배조각 등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가 32.3%(52건)였다.

맥주의 변질,부패는 생산된 지 오래된 맥주가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인 유통기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쉽고 피해보상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하이트맥주와 오비맥주 등 제조업체들은 국내에 판매되는 맥주에는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수출용 맥주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이트맥주는 독일·영국·러시아·뉴질랜드·몽골·중국 수출용에, 오비맥주는 몽골·중국·대만·캄보디아 수출용에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이 외국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맥주의 유통기한을 3~6개월로 표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병맥주는 4~6개월, 캔맥주는 8~12개월 등으로 유통기한을 기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최근 국내 맥주 제조업체에 유통기한 표시를 권고했으나 이들 업체들은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한국 증시, 선진국 지수 편입 또 실패

FTSE "장외거래 등 개선" 요구

한국 증시의 FTSE(Financial Times Stock Exchange) 선진국지수 편입이 3년 연속 무산됐다.

FTSE그룹 마크 메이크피스 회장은 20일 증권선물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대만 주식시장은 기존의 선진국시장 지위를 유지하는 반면 이스라엘은 내년 6월부터 준선진국시장에서 선진국시장으로 승격된다"고 밝혔다.

한국과 대만은 2004년 9월 선진국시장 편입을 위한 공식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3년 연속으로 시장 승격이 좌절된 반면 작년 관찰대상국에 포함된 이스라엘은 곧바로 선진국시장에 편입됐다.

메이크피스 회장은 "한국 증시는 작년에 '제한적충족' 판정을 받은 4개 항목 가운데 공매도 부문에서 '충족'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분리결제와 장외거래, 외환자유화 등 3개 항목에서는 기존 평가 수준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시장에선 국제투자자의 투자권의 제고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분리결제 및 장외거래와 관련된 제도개선 계획이 실행될 경우 제한적 항목은 외환거래 항목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3년 연속으로 선진국지수 편입이 좌절된 대만은 외환거래와 대차시장, 분리결제, 장외거래 등 4개 항목에서 '제한적충족'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타이어 5천본을 실은 (주)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의 대형트럭이 2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나서 북한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이 타이어는 21일 문산-개성을 거쳐 북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0년에도 타이어 5천본을 북한에 지원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두바이유 또 사상최고... 배럴당 74.87달러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이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배럴당 75달러에 접근했다.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9일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는 배럴당 74.87달러로 전날보다 0.75달러 올랐다.

북해산 브렌트유 현물가 역시 전날보다 각각 0.66달러 오른 78.48달러에 거래됐다.

뉴욕 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WTI 10월 인도분 가격도 81.93달러로 0.42달러 상승했다. 지난 13일 사상 최고가 80.09달러에 이른 뒤 14일 79.10달러로 잠시 주춤했으나 다시 사흘째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공사는 미국 원유재고가 전방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급불안 우려로 유가가 올랐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동남아·유럽 여행 현금인출기 사용 조심하세요

추석 연휴와 결혼시즌을 맞아 해외 여행객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카드복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해 돈을 찾는 여행객들의 카드를 위조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빼내는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해외에서 현금이 자신도 모르게 인출됐다"는 신고가 작년 여름 절에는 1건이었지만 올 여름절에는 태국 3~4건, 말레이시아 1건으로 늘었다"며 "특히 태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외에서의 카드복제 범죄는 물건을 사고 결제할 때 마그네틱에 담겨있는 정보를 빼내는 방식

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도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현지 통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체크카드나 글로벌직불카드, 국제현금카드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범죄 수법은 ATM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고객이 누르는 비밀번호를 입수하거나 한쪽 안쪽에 아예 가짜 ATM을 설치해 놓고 마그네틱 카드에 담긴 정보를 빼내는 방법 등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ATM을 이용한 범죄는 지난 7월 국내에서도 발생했었다.

씨티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는 국제현금카드에 대해 1일 이용 한도액(미화 5천달러) 이외에 1회당 인출 한도 및 회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北 가는 금호타이어

5대 제조업 인력 고령화 심각

〈철강·조선·기계·자동차·석유화학〉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 인건비 부담 커

우리나라 제조업 선도기업의 인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0일 발표한 '산업경제정보'에서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등 5대 제조업의 매출액 기준 5위 이내 선도기업의 인력구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철강과 조선, 기계산업의 경우 선도기업은 동종업종 가운데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았고 자동차산업도 생산직의 평균연령이 동종업종에 비해 많았다.

철강산업 선도기업인 A사의 경우 평

군 연령은 42세로 1차 금속산업의 평균 연령 40.2세보다 높았고 평균 근속연수도 18.1년으로 동종업종 평균인 9.8년의 2배에 달했다.

또 기계산업 C사의 가능성 평균 연령은 45세로 동종업종의 36.9세보다 높았고 자동차산업 D사의 생산직 평균 연령은 40.6세로 동종업종 36.6세보다 많았다.

인력의 고령화는 가능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산업 B사의 경우 전체 생산직 근로자 가운데 50대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16.7%에서 2006년 31.6%로 대폭 상승했다.

연구원은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에 채용된 인력은 2010년에는 50세 전후에 이르게 되며 2015년 이후에는 대량 정년 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또 "인력 고령화는 기업에 인건비와 시설투자 등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고 특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산업 E사의 경우 46세 이상 현장직 사원 1명의 인건비가 30세 이하에 비해 1.8배 많았다.

연구원은 제조업 선도기업은 고령화된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아직 조기퇴직 제도나 일시적 구조조정 등 소극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인터넷 쇼핑판매 환급 지연편 年 24% 이자 지급해야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철회로 인해 대금을 환급해 줄 때 소비자에게 대금을 늦게 돌려주면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전자상거래 보호법이 현재 공정위 고시에 규정돼 있는 대금환급 지연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연체금리와 소비자 권익 보장 등의 사항을 고려해 현행 고시의 지연이자율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대기업-부품소재업체 '相生'

年内 제품 신뢰성 경쟁력지수 개발

올해 안에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 전반, 부품·소재 등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신뢰성 경쟁력지수'가 개발된다.

산업자원부는 20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현대차, 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부품·소재기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품·소재 신뢰성 경쟁력지수'를 개발했다.

산자부는 선도기업에서 올해 안에 기업·제품의 신뢰성 평가를 위한 신뢰성 경쟁력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부터는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 발표해 정책 수립과 소비자 보호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신뢰성 경쟁력지수는 기업의 조직·경영활동에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뢰성 활동과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고, 제품 신뢰성 경쟁력지수는 부품·소재의 신뢰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산자부는 또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신뢰성 향상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 수요기업과 부품·소재 기업이 함께 신뢰성 평가기준을 개발한 뒤 수요기업이 구매를 확정하는 조건으로 신뢰성 인증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뢰성이란 공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품질의 특성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연합뉴스

5,900만원짜리 삼성전자 LCD TV

삼성전자가 인도 중국 유럽 등 세계적 호호들을 상대로 판촉전에 들어가는 70인치 풀HD LCD TV '파브(PAVV) LED 70'. 상용 제품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LCD TV로 가격은 5천900만원이며, 국내 백화점 등에서 현재 10여대가 팔렸다. <삼성전자 제공>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진호	일반사무직 여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9/22	062-265-6250
㈜이원출	식재영업 경력채용(근무지 전남 화순)	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9/23	02-2175-4182
건도기업㈜	사무보조 및 경리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9/27	062-523-0235
기원출판사	메인포시 편집 디자이너	대졸/경력5년	회사내규	09/28	062-232-8746
에니그린광주지점	자재 및 OC 담당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9/29	062-943-8802
iAE 유희네트 광주지사	유학 상담 및 수속회원 관리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29	062-233-8171
파워텍	기술영업직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9/29	019-681-6084
㈜대선	영업관리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9/30	062-951-2775
㈜다와이코리아	인테리어디자이너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9/30	042-621-8870
시흥금융	영업 납품직(기본적 품질대응) 및 문서유지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9/30	062-956-0223
삼코리아(광주.전남지사)	텔레마케터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1	062-512-6212
신세계유망	여성의류 쇼핑몰 웹디자이너 및 코디네이터	고졸/경력1년	1200~1400	10/01	062-375-3321
건웅주택	회계, 세무, 재무, 경리, 결산등(건설업)	초대졸/경력7년	2400~2600	10/01	062-682-8383
(유)닐일건설기술공사	토목설계 정규직 사원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04	062-603-158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